

보도 일시	2022. 9. 5.(월)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9. 5.(월)
담당 부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	책임자	과 장 임필교 (02-2110-1442)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유인설 (02-2110-1429)

## 방통위,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방송 준비 현황 점검 - 선제적 재난방송으로 태풍 피해 최소화, 방송시설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5일(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태풍 ‘힌남노’에 대한 방송사의 재난방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방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YTN과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여수MBC와 KNN부산경남방송 등이 참석하여, 태풍 상륙에 대비한 재난방송 준비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지역 방송사의 피해 발생 시, 자체 보유 방송장비의 긴급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전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 등 총 66개 재난방송의무사업자에게 태풍 힌남노에 대비한 재난방송 강화 및 심층적인 재난정보 제공,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의 방송을 요청하고 방송사의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도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 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재난방송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재난정보 제공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각 방송사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